



행복기숙사 선발 방식

행복기숙사 선발 거리 점수 기준 공정성 문제 제기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강나윤 기자 nadori814@khu.ac.kr

행복기숙사 선발 시 반영되는 거리 점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거리 점수 측정 기준이 세분화되지 않아 거리가 더 멀어도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학교 행복기숙사는 재학생과 신입생을 구분해 모집하고 있다. 재학생은 ▲소득분위(50%) ▲거리(40%) ▲성적(10%)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신입생은 거리만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동일 점수에서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기숙사 선발에 있어 ‘거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리 점수 부여 기준은 ▲수도권(경기/인천) 지역 50점

▲비수도권 및 해외 지역 100점으로 다소 단순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행복기숙사 선발 기준에 따르면 학교에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경기도 용인시는 왕복 2시간이 소요되는 경기도 하남시와 50점이라는 동일 점수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똑같이 2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강원·충북 지역일 경우 거리 점수에서 100점을 부여받게 된다. 거리와 교통편이 복잡해도 경기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거리 점수를 낮게 받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으로 통학 자체가 어려운 평택시 등 경기도 외곽 지역은 50점의 거리 점수를 부여받으나 경기도 하단에 인접한 충청남도 아산, 천안시의 경우 100점의 거리 점수를 받게 된다.

학생들도 선발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국정현(미디어

학 2021) 씨는 “비대면 학기에도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대면으로 전환 되면 기숙사 경쟁률이 더 높아져 입사가 더 어려워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일부 경기도 지역은 학교까지의 교통편이 편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거리 점수 부여 기준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김윤지(경영학 2020) 씨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왕복 3시간의 통학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힌 김 씨는 “비대면 학기로 인해 입사 신청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합격 안정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향후 기숙사

에 입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통학을 할 생각이지만 체력 소모가 너무 크다. 이어 “수도권이더라도 위치에 따라 학교까지의 거리는 천차만별이고 일정 거리를 넘어서면 지취가 불가피한 여건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기숙사 선발 방식 중 무작위 추첨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학생의 불만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학교 행복기숙사는 선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책정한 후 동일 점수 학생들은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입사자를 선발, 예비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로부터 매우 먼 거리에 거주하

고 있는 학생이라도 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라면 거리 점수에서 모두 같은 100점을 부여받아 합격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충남 아산시 거주 신입생과 제주도 거주 신입생은 같은 거리 점수 100점을 부여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기숙사 입사를 결정하게 된다. 기숙사 모집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자취 등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불합격해 자취를 시작했다고 밝힌 강원도 강릉시 출신 김동현(미디어학 2021) 씨는 “매달 감당해야 할 월세를 포함해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이 컸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1년간 홀로 자취 생활을 해온 김 씨는 현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친구들과 함께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강릉보다 더 먼 거리에서 온 학생들이 기숙사에 떨어진 사례를 많이 들었다”며 “이들의 입사가 보장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 진주시 출신의 이정민(미디어학 2021) 씨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비수도권이더라도 실제 거리에 따라 소요되는 에너지와 비용, 시간이 다름에도 모든 지방 학생에게 동일한 거리 점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리학교와 인접한 한양대학교와 건국대학교는 비교적 구체화된 기준으로 기숙사생을 선발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수도권인 경기도 지역 내에서 1순위와 2순위를 구분해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물리적인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수원시, 의정부시 등은 2순위, 그보다 거리가 먼 포천시, 과천시 등은 1순위로 평가한다. 건국대학교 기숙사 역시 수도권을 통학 시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점수를 상이하게 부여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거리 점수 기준에 대해 행복기숙사 측은 “학생들이 의견을 내준다면 더 좋은 방안을 찾아 한양대와 건국대처럼 세분화하는 것이 맞다”고 긍정했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 통학시간, 교통편 등 하나로 절충하기 어려운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기 힘든 일”이라며 학생들의 합의된 의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선발 1순위인 저소득층 학생들을 최대한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가능한 선에서 학생들의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의향이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